

‘우리 다함께 심(心)쿵~ 애(愛)쿵~ 정(情)쿵~ 타(打)’

고창 전통문화의 진수를 담은 ‘고창농악’을 배울 수 있는 고창농악보존회(회장 이명훈) 여름전수가 오는 11일부터 8월28일까지 7주간 펼쳐진다.

고창농악은 인기리에 공연되고 있는 고창 한옥상설공연 ‘도리화 귀경가세’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공연은 고즈넉한 한옥 아래 연극, 기악, 인형극 등이 어우러진 ‘바리아터티 감성농악’으로 고창 출신의 판소리 이튼가 신재효와 그의 제자이자 조선 최초의 여성 판소리꾼인 진채선의 예술혼과 그리움을 담아내고 있다.

공연을 주관하는 고창농악보존회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전수를 진행한다.

고창농악보존회, 오늘부터 7주간 여름 전수

고 있고 이번 전수는 ‘우리 다함께 심(心)쿵~, 애(愛)쿵~, 정(情)쿵~타(打)’라는 슬로건으로 고창농악전수관 신축동 ‘종물소리테마파크’에서 펼쳐진다.

올해 여름전수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농악’의 저변확대 및 계승발전을 위해 고창농악 전승시범학교로 지정된 강호항공고등학교 전수생들의 5박6일 ‘청소년 캠프’를 처음 실시해 의미를 더하고 있다.

강호항공고 ‘청소년 캠프’를 시작으로 7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는 일반전수가,

8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심화전수가 펼쳐진다. 일반전수는 고창농악에 관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전수는 일반전수 수료자나 이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개인이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전수를 기획한 이광후 보존회 교육예능팀장은 “뜨거운 태양 아래 펼쳐지는 여름 전수는 고창농악을 후대로 전수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서 “전수생 모두가 고창농악을 즐겁게 배우고 돌아가 고창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사

람 중심의 전수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매 주자 금요일 저녁에는 고창농악 이수자들이 무대에 서는 ‘도리화 귀경가세’를 함께 관람하는 시간이 마련돼 있다”며 “고창농악이 다른 장르의 전통예술과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리화 귀경가세’와 전수를 주관하는 고창농악보존회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돼 있으며 고창농악을 원형 그대로 율곡계 계승, 발전, 보급, 육성하는 사단법인이다. 여름전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gochanggut.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63-562-2044. /고창=김영식 기자



군산야행(夜行)

내달 13~14일 근대역사박물관 일원서

다양한 역사 문화유산 자원을 접목한 야간형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군산야행(夜行)’이 근대역사박물관 및 원도심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13일부터 14일,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진행된다.

‘군산야행’은 밤에 느끼는 지역 문화유산의 7가지 정취 7야(夜)를 주제로 ▲야로(夜路, 밤에 걷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의 거리), ▲야사(夜史, 몸과 마음으로 느끼는 역사 이야기), ▲야화(夜花, 한여름 밤에 보는 문화유산의 정취), ▲야설(夜說, 밤에 펼쳐지는 문화공연), ▲야경(夜景, 밤에 비추는 아름다운 군산의 문화유산), ▲야식(夜食, 밤에 즐기는 맛의 거리), ▲야숙(夜宿, 문화재에서의 하룻밤)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분포한 다양한 지역 문화재를 거점으로 연계한 문화유산 거리를 거닐며, 전시·관람, 문화재 답사, 거리 테마공연, 플라마켓, 체험활동 등 40여 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공군 군악대·의장대 거리퍼레이드, 시립예술단 음악회, 진포대첩 재현행사, 등불거리 점등식, 금강야행 콘서트, 수시탑 야경 불빛쇼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함께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야행은 수탈과 항쟁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근대 문화유산의 정취를 향유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되새겨 볼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로 만들 것이다”며 “앞으로도 본 행사가 매년 지속되어 군산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문정곤 기자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 라인업 발표

장르별 대표가수 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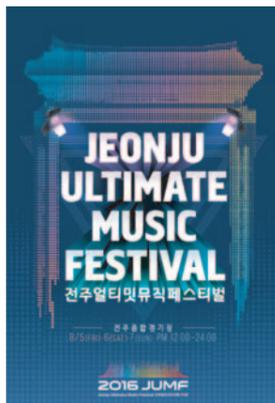
전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에서 오는 8월 5일~7일 3일간 펼쳐지게 될 ‘2016 JUMF 전주얼티밋뮤직페스티벌(Jeonju Ultimate Music Festival)’이 최종 라인업을 공개했다.

JUMF는 지역에서 열리는 최초·최대 규모의 뮤직페스티벌로 전주주민은 물론 전주시를 찾는 국내 및 해외 방문객들의 한여름 밤을 위해 열린다.

페스티벌 1일차인 8월 5일에는 힙합·K-POP·SOUL·EDM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페스티벌 1일차인 8월 5일에는 힙합·K-POP·SOUL·EDM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가수들이 대거 출연한다. 합합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으로 활약 중인 지아엔티와 2016 가요계를 뜨겁게 달군 프로듀스 101의 IO.I를 비롯해 DJ DOC, 부활, 바비킴, 팔로알토, 허클베리피, G2, 레디, 비와이, JIGGY DOGG, 헤이아, 디올릭, 퍼펄즈, 에이데일리, 후레쉬 보이즈, DJ KOO, DJ SODA 등이 무대에 오른다.

이어 6일에는 대한민국 록을 대표하는 레전드 아티스트들 이승환과 YB, 노브레인, 크라잉넛이 공연을 펼친다. 이와 함께 북면가왕에서 음악대장으로 9주 연속 가왕의 신기록을 세운 국카스텐, <She's gone>으로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스티븐하트의 밀전초 마티예비치 그리고 로만틱편지, 갤럭시시크스프레스, 나티, 스트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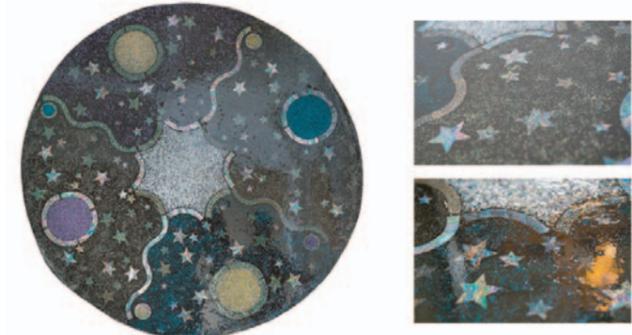


건즈, 로열과이러츠 등을 만나 볼 수 있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인디아티스트의 대표주자인 데이브레이크, 브로콜리너마저를 비롯하여 어반자카파, 몽니, 소란, 솔루션스, 팍진언 그리고 밴드아티스트 전인권밴드, 장미여관 등이 출연해 페스티벌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티켓은 인터파크, YES24공연, 멜론 티켓 또는 220-8288로 예매하면 된다.

페스티벌 기간 중 코레일 내일로를 이용하는 25세 미만 관람객에게는 3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통문화전당, 12일 김성희 작가전

‘우주 그리고 리듬’ 주제로

과학과 예술, 음악이 조화를 이루는 전시회가 열린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오는 12일 오후 3시 30분 전당 3층 제2기획전시실에서 ‘우주 그리고 리듬’이라는 주제로 김성희 중원대학교 교수의 작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자개라는 전통소재와 탄소섬유라는 미래소재가 융합된 이채로운 작품들을 선보인다. 전시작 관련 작가는 “우주는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인다. 그 움직인 안에는 우주의 탄생·성장·소멸이라는 리듬, 질서와 변화라는 리듬 등 다양한 형태의 리듬을 지니고 있다”며 작품창작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미술작품과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는 음악도 곁들여진다. /정해은 기자

이는 작가의 작품에 음악을 접목하는 ‘화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화음프로젝트는 갤러리나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을 미리 화음컴퓨터오케스트라 단원들이 감상 후 영감을 떠올려 작곡한 실내악곡을 전시가 열리는 날 그 전시공간에서 연주(초연)하는 프로그램으로, 이 프로젝트에는 작곡가 백영은씨를 비롯해 대금의 박명규, 소금 조준영, 타악의 정하나씨가 참여한다.

이들은 <대금, 소금과 타악기를 위한 ‘비상’>이라는 주제로 김 작가의 작품에 음률을 더할 예정이다.

한국전통문화전당 최재덕 사업본부장은 “이번 전시는 전통과 현대, 예술과 과학, 음악이 한데 어우러지는 독특한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시는 오는 31일까지.

/정해은 기자

김선경, 12년만에 뮤지컬 복귀 ‘도로시 브룩’ 열연

“20~30대는 뭘 몰랐어요. 솔직히 나밖에 안 보였죠.”

이젠 40대 중반도 훌쩍 넘어버린 그녀가 소녀처럼 깔깔했다. 12년만에 뮤지컬 무대로 돌아온 배우 김선경(48·사진)이 활짝 웃었다.

20년째 국내에서 통련하고 있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도로시 브룩’으로

열연하고 있다. 브룩은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 단숨에 스타로 발돋움한 ‘페기 쇼어’에 밀리는 왕년의 스타다.

12년만에 다시온 뮤지컬, 30대대 했던 브룩을 다시 연기한다. “그땐 그저 브룩이 성숙해보이도록 진짜 연기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일부러 품을 들이지 않아도 그 여에 붙임되고 있어요”라며 스스

로 흐트한 미소를 드러냈다.

1세대 뮤지컬 배우로 25년차인 그녀는 막강한 ‘여성 배우’로 거듭났다. 지난해 뮤지컬 ‘쿠거’를 하면서 “이제는 좀 뭘 알 것 같다”는 느낌이 온몸을 통과했다. ‘쿠거’는 30~40대 여자들의 속사정과 심리를 밖으로 끌어낸, 또 여자배우가 만들어 화제가 된 작품이다. /김민근 기자



한국문화예술위, ‘문학공감 스토리텔링 공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가 ‘2016 문학공감 스토리텔링 공모전’을 9월25일까지 진행한다.

잊혀져가는 우리 이야기를 찾아내고 함께 읽으며 나아가 창작의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자리다.

첫 번째 스토리 공모 ‘우리동네 이야기’(8월14일까지)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역사적 실화, 전설, 인물 등을 소재로 한 이야기가 대상이다.

두 번째 스토리 공모 ‘할머니의 유산’(8월15일~9월25일)은 이전 시대를 살아온 노인의 과거 경험을 소재로 한 이야기면 된다.

대한민국 거주자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출품작은 e-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제별로 입선작을 결정한다.

‘2016 문화주간’(10월 8~14일 예정) 행사에서 입선작들을 대상으로 낭독경연대회를 열고 최종 수상자를 뽑는다. 061-900-2325 /김민근 기자

극동·광고문의 288-9700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6년 7월 11일>

<p>▷쥐띠 46년생: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 뜻밖의 변수가 생긴다. 60년생: 욕심을 부리려다 욕심이 심해지면 실패가 따른다. 72년생: 앞으로 나아갈 때와 뒤로 물러설 때를 알아야. 84년생: 동기인과 시비가 따르니 가벼운 농담을 삼가고 진지하게 임하라.</p>	<p>▷소띠 49년생: 신상을 다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61년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부른다. 73년생: 다른 사람과의 불화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라. 85년생: 자신도 모르게 주장이 강해지는 운.</p>	<p>▷호랑이띠 50년생: 하는 일에 막힘이 생기는 운. 62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 74년생: 주변사람의 도움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으면 성사될 수 있으니 추진하라. 86년생: 혼자 고민하지 말고 윗 사람의 조언을 구해라.</p>	<p>▷토끼띠 51년생: 금전거래는 불리하니 하지 말아야. 63년생: 구설수가 따르니 언행에 주의하라. 75년생: 귀인의 협조가 따르는 운이니 혼자자 아님을 명심하라. 87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이 있다면 추진하라.</p>
<p>▷용띠 52년생: 사소한 일에 얽매이지 말라. 64년생: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 위기와 함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운이니 미리 대비하라. 76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 88년생: 속으로 생각한 것들은 외부로 표출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p>	<p>▷뱀띠 53년생: 결으로는 화려한 듯 하나 실속이 없다. 65년생: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야 하는 운이다. 77년생: 윗 사람에게 의지해야 잘 풀리는 운이다. 89년생: 정신력이 흐트러지는 운으로 집중력이 저하되니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일은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말띠 54년생: 내 것이 아닌 것에 욕심 부리지 마라. 66년생: 지금은 자숙하며 때를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78년생: 주변의 관계를 돈독하게 재정립해야. 90년생: 정신적으로 힘든 운이다.</p>	<p>▷양띠 55년생: 베풀던 덕이 되어 돌아오는 운이다. 67년생: 지나친 과대성은 부작용을 불러오니 부드러움을 유지하며 진행하라. 7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이 용이한 운. 91년생: 때로는 겸손한 언행이 자기 자신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법.</p>
<p>▷원숭이띠 56년생: 상황에 끌려가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68년생: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시의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심이 약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 80년생: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놀랄만한 일이 발생. 92년생: 손윗사람에게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 때다.</p>	<p>▷닭띠 57년생: 지나치게 계산적인 생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칠 염려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 69년생: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81년생: 고집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막게 한다. 93년생: 매사 하고자 하는 일에 계획을 잘 세워야.</p>	<p>▷개띠 46년생: 변통수를 갖는 것은 흉하니 때를 기다려라. 58년생: 심혈관계통에 주의를 요하는 운. 70년생: 매사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분수를 지키면서 자중해야. 82년생: 물에 상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고 실수가 따르는 운이니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변화를 추구하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59년생: 정신이 산만한 운이다. 71년생: 자신보다 강한 상대와 함께 하라. 83년생: 구설수와 시비가 따르는 운이니 다른 사람과의 불화를 조심하라.</p>